

부모의 자존감과 행복감이 아동·청소년기 자녀의 자존감과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곽수란¹, 송미옥^{2*}, 김영호³

¹고구려대학교 유아교육과, ²동강대학교 유아교육과, ³고구려대학교 아동노인복지과

Effects of Parents' Self-Esteem and Happiness on the Self-Esteem and Happiness of Children and Adolescents

Soo-Ran Kwak¹, Mi-Ok Song^{2*}, Young-Ho Kim³

^{1,3}Professor, Koguryeo College

²Professor, Dongkang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제공한 아동청소년패널 2018, 초4와 중1 패널 1차 데이터를 사용하여 아동·청소년기 부모와 자녀의 자존감과 행복감의 인과관계를 확인하였다. 분석 맥락은 부모의 자존감과 행복감이 양육태도 미치는 영향, 더 나아가 자녀의 학업활동, 자존감 그리고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것이다. 자존감과 행복감은 상호작용 요인이기 때문에 부모의 자존감과 행복감을 외생변수로 투입하여 상관관계로 확인하였으며, 자녀의 자존감과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은 인과관계로 검증하였다. 본 연구는 아동·청소년기 정신건강 척도인 자존감과 행복감이 부모의 자존감과 행복감과 어떻게 연계되었는지 탐색할 수 있다. 또한 아동·청소년기 건강한 발달을 도모 하는데 있어 가정 배경인 부모역할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Abstract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steem and happiness of parents and children in the 4th-grade elementary school and the 1st-grade of middle school using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KCYPS) 2018 data by the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The context of analysis is to determine how parents' self-esteem and happiness affect parenting attitudes, and furthermore, how they affect their children's academic activities, self-esteem and happiness. This study is able to explore the level at which self-esteem and happiness, the mental health measure of children and adolescents, were linked to parental self-esteem and happiness. And it suggests that the importance of the role of a parent as a family background has been confirmed in promoting the healthy development of children and adolescents.

Key Words Parent self-esteem, parent happiness, children self-esteem, children happiness

1. 서론

본 연구는 부모의 자존감과 행복감이 자녀의 자존감과 행복감과 직접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가정에서 시작하였다. 부모가 행복해야 자녀도 행복하다. 부모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자신을 긍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부모의 양육태도의 중요성을 강조할 때 상식처럼 제기되는 주제이다. 즉, 부모의 자존감은 부모의

행복감과 연계되어 양육태도에 차이를 나타낸다. 더 나아가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녀의 자존감과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부모-자녀 간 자존감과 행복감은 직접적인 인과관계 맥락을 나타내는 것으로 가정되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부모의 자존감과 행복감이 자녀의 자존감과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우선적으로 확인하고자 한다. 또한 부모의 자존감과 행복감이 부모 양육태도와 자녀 학업활동을 매

본 연구는 제8회 한국아동청소년패널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2019년 11월 15일)으로 토론자와 심사자의 논평과 의견을 수용하여 수정·보완한 것이다.

*Corresponding Author : Mi-Ok Song(Dongkang University)

Tel : +82-62-520-2407 E-mail : smo314@hanmail.net

Received April 28, 2021

Revised June 30, 2021

Accepted July 10, 2021

개하여 자녀의 자존감과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인과관계로 검증하고자 한다. 이 연구 결과는 아동·청소년기 자존감과 행복감이 그들 부모의 자존감 및 행복감과 어떤 인과관계 맥락을 나타내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아동·청소년기 건강한 발달을 위한 가정배경의 중요성을 탐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부모-자녀의 자존감과 행복감 관계

자존감(self-esteem)은 자신의 능력, 중요성, 가치에 대한 믿음 등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라고 정의되고 있다[1]. 자존감은 주장자에 따라 다양한 요소가 포함되어 있지만, Brown & Marshall[2]은 자신에 대한 긍정적 인식, 자신에 대한 자아 가치감, 능력이나 속성에 대한 자기 평가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자존감을 자기가치와 효능감으로 설명하기도 한다[3-6]. 결과적으로 자존감은 자신에 대한 긍정적 평가로 쓸모 있는 존재로 인식하는 측면과 자신에 대한 효율성 평가인 효능감으로 요약될 수 있다.

자존감은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지만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된다. 자존감은 아동의 의존욕구가 충족되는 양육환경 내에서 부모와의 건강한 질적인 경험을 통해 형성된다. 아동은 부모와의 애착관계를 통해 사랑받고 수용 받으며 유능하다는 감각을 내면화하면서 주위환경에 대해 안정감을 느끼고 자기의 정서조절도 할 수 있는 것이다. 즉, 어린 시절의 애착 경험은 평생을 지속한다[7]. Robins & Trzesniewski[8]은 자존감 발달이 부모의 양육 환경에 따라 아동기에는 높아졌다가 혼란기인 청소년기에 쇠퇴하며, 성인기에 다시 절정을 이르고, 노년기에 쇠퇴하는 과정을 거친다고 보았다. 결국 Epstein[4]은 어린 시절부터 부모에게 사랑받음으로써 갖게 되는 가치를 내면화함으로써 자존감을 형성하고, 성장한 후에도 그 내면화된 자존감은 지속적으로 개인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녀 자존감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강조하

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부모 양육방식에 따라 자녀의 자존감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자존감은 순환적으로 부모의 부모로부터 영향을 받게 되는 논리적 맥락을 갖는다. 부모는 자신의 성격에 맞춰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키워진 방식대로 자녀를 양육하게 된다는 것이다[9]. 이는 부모의 자존감이 자녀의 자존감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음을 강력하게 시사하는 것이다. 국내 선행연구에서도 부모 양육태도와 자녀 자존감과의 관련성은 지속적으로 검증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10-16]. 아동·청소년기에 형성된 자존감은 자신 이외의 물리적 사회적 환경과의 상호작용 기준이 되기 때문에 현재 및 미래 성인기까지 생활 전반영역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Humphreys[17]은 자존감을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스스로 걸러낸 자아이며 행복을 결정하는 중요한 특성이라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Coopersmith[18]는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의 특성은 활동적이고 주장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반면에 낮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들은 열등감과 불안 그리고 심리적, 신체적 증상과 우울 정서를 나타내는 경향이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자존감이 개인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건강 그리고 일상생활 만족과 직접적인 관련성을 시사하고 있다. 즉, 자존감은 무엇보다도 정신건강의 척도이며 자존감이 건강해지면 행복감을 느낀다. 자존감이 행복의 결과물이기도 하고 자존감의 결과가 행복감이기도 한 것이다[19]. 바꾸어 말하면, 자존감과 행복감은 긴밀하게 상호 연계되어 있는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자존감이 양육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행복감 또한 양육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설명이 가능한 것이다[20-24][10].

행복감은 학자에 따라 객관적 삶의 질이나 만족 또는 주관적 안녕감, 자기효능감 등으로 다르게 정의되고 있다. Veenhoven[25]은 행복을 주관적 안녕으로 정의하였으며, 전반적 개념의 주관적 안녕은 생활만족, 욕구충족, 기쁨수준으로, 세부적 개념의 주관적 안녕은 직무만족, 자긍심, 통제신념으로 규정하였다[26]. 반면,

Averil & More는[27] 행복에 대한 논의가 심리적 체계만을 문제 삼고, 신체 및 생리적 특성이거나 사회적 체계에서의 행복은 간과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인간의 행복이란 신체·생리적 및 심리·사회적 체계 각각의 수준이 갖는 목표를 최적화하는 것이라 설명하고 있다[26]. 행복은 상대적이며 따라서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는 있지만 그 질적 내용에 있어서는 개인마다 다르다는 것이다. 행복감에 대한 정의를 종합하면, 행복감은 주관적인 안녕감이지만 심리적 특성뿐만 아니라 신체·생물학적 특성 및 사회적 관계와 연계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그 영역과 내용 및 속성이 매우 광범위하게 논의되고 있다. 이는 행복감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기 위해서는 행복감의 영역 및 내용에 대한 비교적 명확한 조작적 정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는 Averil & More[27]의 주장에 따라 행복감을 생리적, 심리적, 사회적 만족도로 비교적 포괄적으로 규정하였다[28]. 부모와 자녀는 신체·생리적, 심리 및 사회적 관계가 매우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부모-자녀 행복감은 명백하게 인과관계를 갖는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더 나아가 자존감 형성과 마찬가지로 부모의 행복감 또한 순환적으로 부모의 부모로부터 영향을 받게 되는 논리적 맥락을 갖는다.

아동·청소년기는 자아중심성에서 벗어나 자아개념을 형성하고 더 나아가 자신에 대한 가치감과 중요성을 인지하는 자존감을 형성하는 결정적 시기이다. 자존감은 스스로에게 갖는 개인적 가치감 또는 긍정적 평가라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자신에 대한 중요성 또는 존중감은 아동·청소년기에 과도기적 상황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부적응적 특성을 완화시킬 수 있는 중요 발달과업이다. 다른 한편으로 아동·청소년기의 자녀와 상호작용하는 부모 또한 아동·청소년기부터 형성한 자존감을 토대로 자녀를 양육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부모의 자존감 형성 수준에 따라 부모-자녀 간의 관계를 포함한 일상생활 만족도 또는 행복감 수준에 차이가 나타날 것으로 가정되는 것이다[18][29-32]. 결과적으로 부모는 아동·청소년기에 형성된 자존감을

토대로 그들 자녀를 양육하기 때문에 부모-자녀 간 자존감은 직접적 인과관계로 연계되어 있을 가능성이 상정되는 것이다. 또한 긍정적인 자기평가와 가치감인 자존감은 행복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측면에서 부모의 자존감과 행복감이 자녀의 자존감과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자존감과 행복감 간의 관계를 분석한 선행연구들은 아동·청소년의 주된 생활영역이 학교이며, 또한 학업활동은 학교교육 이후의 생활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측면에서 자존감과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고 있다. 행복감에 대한 실증적연구들은 아동·청소년기 학습 수행 수준이 현재 및 미래 생활만족도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16][23][32-37]. 또한 자존감이 아동·청소년기 학업활동이나 행복감 간 인과관계를 검증해 내고 있는 것이다[16][35][38]. 더 나아가 부모의 자존감과 행복감에 따라 달라지는 양육태도가 자녀의 자존감이나 행복감 그리고 학업활동이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연구 또한 확인되고 있다[39-44]. 그런데 부모-자녀 간 자존감과 행복감의 직접적 인과관계를 확인하는 연구는 제한적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자존감과 행복감이 부모에서 자녀에게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지 우선적으로 확인하고자 한다. 더 나아가 부모-자녀 간 자존감과 행복감이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녀의 학업활동 관계에서 어떤 인과관계 양상으로 나타나는지 검증하는 것이다. 본 연구 결과는 자존감과 행복감을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 확인함으로써 아동·청소년기 건강한 발달을 지원하는 정보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이 결과는 추후 패널 데이터가 축적되었을 때, 부모-자녀 간 자존감과 행복감의 인과관계를 종단적으로 검증하는데 필요한 근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3. 연구방법

3.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수집 ·

제공한 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표본은 초4와 중1 패널 각각의 1차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본 연구모형에 투입된 변수에 결측치가 없는 사례를 최종적으로 선정하였다. 분석 표본은 초4 패널 2,395명이며, 중1 패널은 2,382명이다. 17개 측정변수 간 상관계수를 추정한 결과 초4와 중1 패널 모두 $p <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계수가 추정되었다.

3.2 분석변수

이 연구는 부모-자녀 간 자존감과 행복감의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구조방정식모형을 설정하고 분석하였다. 분석변수는 한국아동청소년 패널 데이터로 수집된 것이며, 분석변수를 구성하는 전체 문항은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모와 자녀의 자존감은 긍정자존감과 부정자존감으로 측정변수를 구성하였다. 긍정과 부정은 문항특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긍정적 문항으로 구성된 변수가 긍정자존감이며, 부정적 문항으로 구성된 변수가 부정자존감이다. 부정자존감은 구조방정식모형의 잠재변수로 구성하기 위하여 역산하여 변수 내용의 방향을 일치시켰다. 초4와 중1 부모자존감의 신뢰도는 .753 이상이며, 자녀자존감 신뢰도는 .708 이상으로 측정되었다.

부모의 긍정양육태도는 파스함, 자율성지지, 구조제공으로 구성되어 있고, 부정양육태도는 거부, 강요, 비밀관성 변수로 측정되었다. 초4 거부 변수의 신뢰도 .644를 제외하고 모두 .710 이상으로 측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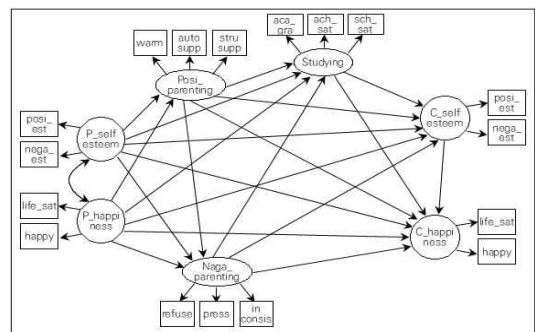
자녀의 학업활동은 전 과목 학업성적 수준, 학업성적에 대한 만족도 그리고 학교생활 만족도를 측정하는 요인이다. 초4 신뢰도는 .645이며 중1 신뢰도는 .649이다.

부모와 자녀의 행복감은 일상 생활만족도와 주관적 행복도로 측정되었으며, 부모와 자녀 동일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초4와 중1 부모행복감 신뢰도는 .808 이상이며, 자녀자존감 신뢰도는 .789 이상이다.

3.3 연구 모형

본 연구는 초등학교 4학년 아동과 중학교 1학년 청소년의 자존감과 행복감을 확인하는 연구이다. 아동·청소년기는 사회적 관계가 확대되는 시기이지만 부모의 영향력이 절정을 이루는 시기이기도 하다. 따라서 부모의 자존감과 행복감이 양육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결국 부모의 이러한 특성이 자녀의 학업활동을 통해 자존감과 행복감과 어떤 인과관계를 갖는지 검증하는 것이다.

먼저, 구조방정식모형에 투입된 측정변수의 특성을 탐색하기 위한 기술통계량은 SPSS 프로그램을 통해 실시하였다. 기술통계량은 분석에 투입되는 변수의 특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이기 때문에 제시하였다. 부모-자녀의 자존감과 행복감의 인과관계 분석은 LISREL 프로그램을 사용한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기와 청소년기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두 개의 모형으로 각각 분석하여 비교하였다. 모수추정은 최대가능법(ML)이며, 구조방정식모형 적합도는 χ^2 , TLI, RMSEA 지수가 사용되었다. [Fig.1]은 구조방정식모형을 보여주고 있다.



[Fig.1] SEM of self-esteem and happiness
[그림 1]. 자존감과 행복의 SEM

3.4 분석 방법

구조방정식모형의 추정방법은 ML이며, 기본 가정은 다변량 정상성이라 할 수 있다. LISREL PRELIS를 통해 확인한 측정변수의 다변량 정상성은 [Table 1]에 제시하였다. 다변량 편포도 및 첨도 그리고 편포도와 첨도를 동시에 검증한

χ^2 검증 통계량이 크게 추정되며 이 값이 관찰될 확률은 .00이다. 결과적으로 초4와 중1 집단으로 구분하여 설정한 17개 측정변수의 다변량 정상성은 충족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

[Table 1] Test of multivariate normality

[표 1] 변수의 정상성 검증

| Model | Skewness | | | Kurtosis | | | Skewness & Kurtosis | |
|-----------------------|----------|-------|-----|----------|-------|-----|---------------------|-----|
| | Value | Z | p | Value | Z | p | χ^2 | p |
| E4_model (N=2,395) | 6.27 | 24.57 | .00 | 353.16 | 21.37 | .00 | 1060.24 | .00 |
| M1_model (N=2,382) | 7.60 | 30.40 | .00 | 377.67 | 31.95 | .00 | 1945.15 | .00 |

반면 [Table 2]는 구조방정식모형에 투입되는 17개 측정변수의 기술통계량으로 개별 변수 정상성을 확인할 수 있는 편포도와 첨도가 제시되어 있다. 다변량 정상성이 충족되지 않으면, WLS와 같이 정상성 가정이 상대적으로 엄격하지 않은 추정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변수가 연속적이지 않거나 표본크기가 무한대로 크지 않은 경우에도 통계적 가정이 엄격한 ML이 신뢰할만한 결과를 나타낸다[4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변량 정상성 가정을 단일변수 정상성으로 대체하고 ML방식으로 모수를 추정하고자 한다.

[Table 2] Univariate summary statistics

[표2] 일변량 요약

| variables | Mini mum | | Maxi mum | | Mean | | St.D | | Skew ness | | Kur tosis | |
|-------------|----------|------|----------|------|------|------|------|------|-----------|------|-----------|------|
| | E4 | M1 | E4 | M1 | E4 | M1 | E4 | M1 | E4 | M1 | E4 | M1 |
| P_posi_est | 1.00 | 1.00 | 4.00 | 4.00 | 3.06 | 3.04 | .42 | .42 | .00 | -.05 | .94 | 1.04 |
| P_neg_a_est | 1.40 | 1.00 | 4.00 | 4.00 | 3.01 | 2.99 | .47 | .48 | -.11 | -.29 | -.18 | .42 |
| P_life_sat | 1.00 | 1.00 | 4.00 | 4.00 | 2.65 | 2.62 | .51 | .52 | -.22 | -.19 | .56 | .46 |
| P_happy | 1.00 | 1.00 | 4.00 | 4.00 | 3.13 | 3.10 | .44 | .43 | .19 | .14 | 1.87 | 2.33 |
| warm | 1.00 | 1.00 | 4.00 | 4.00 | 3.60 | 3.38 | .52 | .57 | -1.15 | -.54 | .87 | -.09 |
| auto_supp | 1.00 | 1.00 | 4.00 | 4.00 | 3.50 | 3.35 | .52 | .58 | -.91 | -.56 | .67 | -.09 |
| stu_supp | 1.00 | 1.00 | 4.00 | 4.00 | 3.31 | 3.07 | .51 | .54 | -.48 | -.28 | .36 | .80 |
| refuse | 1.00 | 1.00 | 4.00 | 4.00 | 1.62 | 1.76 | .53 | .62 | .85 | .79 | 1.03 | .76 |
| press | 1.00 | 1.00 | 4.00 | 4.00 | 2.11 | 2.17 | .64 | .65 | .24 | .18 | -.20 | -.21 |
| in_consis | 1.00 | 1.00 | 4.00 | 4.00 | 1.87 | 2.04 | .61 | .64 | .37 | .24 | -.17 | -.11 |
| aca_gra | 1.00 | 1.00 | 5.00 | 5.00 | 3.89 | 3.43 | .79 | .93 | -.25 | -.21 | -.30 | -.22 |
| ach_sat | 1.00 | 1.00 | 5.00 | 5.00 | 4.10 | 3.44 | .84 | 1.00 | -.65 | -.20 | -.03 | -.48 |
| sch_sat | 1.00 | 1.00 | 5.00 | 5.00 | 4.27 | 4.06 | .82 | .90 | -.96 | -.78 | .56 | .26 |
| C_posi_est | 1.00 | 1.00 | 4.00 | 4.00 | 3.34 | 3.11 | .50 | .55 | -.50 | -.27 | .11 | .26 |
| C_neg_a_est | 1.00 | 1.00 | 4.00 | 4.00 | 3.14 | 2.90 | .54 | .56 | -.62 | -.26 | .22 | -.20 |
| C_life_sat | 1.00 | 1.00 | 4.00 | 4.00 | 3.12 | 2.78 | .55 | .60 | -.39 | -.16 | .05 | .11 |
| C_happy | 1.00 | 1.00 | 4.00 | 4.00 | 3.47 | 3.21 | .56 | .61 | -.91 | -.50 | .78 | .46 |

4. 부모-자녀 간 자존감과 행복감 인과관계 분석

[Table 3]은 부모-자녀 간 자존감과 행복감의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설정한 구조방정식모형 적합도이다. 정량적 적합도 지수인 χ^2 은 초등학생 모형이 605.93(df=96, p=.00), 중학생모형은 475.74(df=96, p=.00)로 두 개의 구조방정식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그러나 정성적 지표인 TLI는 각각 .95 이상이며, RMSEA는 .05 이하로 적합하게 추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환언하면, 부모-자녀의 자존감과 행복감 간의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설정한 구조방정식모형은 정량적 지표는 적합하지 않지만, 근사적합도 지표인 RMSEA가 .04로 양호하고, 그 외 정성적 지표 또한 수용 가능한 적합도로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를 위해 설정한 구조방정식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평가하고 개별 추정치를 해석하고자 한다.

또한 초등학생과 중학생 집단의 구조방정식모형을 동일한 모형으로 매칭하는 다집단모형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집단모형분석은 두 집단이 동일한 인과관계 맥락을 갖고 있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설정된 구조방정식모형을 매칭한 후 그 적합도 유의성을 확인하는 것이다. 다집단모형분석 결과 적합도가 유의하게 나타나면 초등학생과 중학생 모형의 인과관계가 유사한 맥락이라는 것을 나타내주기 때문에 두 개의 모형을 비교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다집단모형분석 결과, χ^2 은 866.05(p=.00)로 적합하지 않으나 정성적 지표인 TLI=.98, RMSEA=.02로 추정되고 있으며, 그 가운데 근사적합도 지표인 RMSEA는 일반적 기준값 .05보다 작아 양호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이에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구조방정식모형 분석결과를 각각 제시하고 개별 경로를 비교하였다.

[Table 4]는 구조방정식모형 측정모형 추정치를 제시한 것이다. 잠재변수인 부모의 자존감과 행복감, 긍정양육태도, 부정양육태도, 학업활동, 자녀의 자존감과 행복감을 측정하는 관찰변

[Table 3] LGM goodness of fit statistics

[표 3] LMG 적합도

| SEM | χ^2 (p) | df | NC | TLI | RMSEA |
|-----------------------------|--------------|-----|------|-----|-------|
| E4 model (n=2,395) | 605.93(.00) | 96 | 6.31 | .98 | .04 |
| M1 model (n=2,382) | 475.74(.00) | 96 | 4.96 | .98 | .04 |
| Multi_group model (n=4,777) | 866.05(.00) | 249 | 3.48 | .98 | .02 |

수의 요인부하량(λ)은 $p < .001$ 수준에서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잠재변수에 연계된 관찰변수가 그 잠재변수를 잘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구조방정식모형 분석결과는 구조모형으로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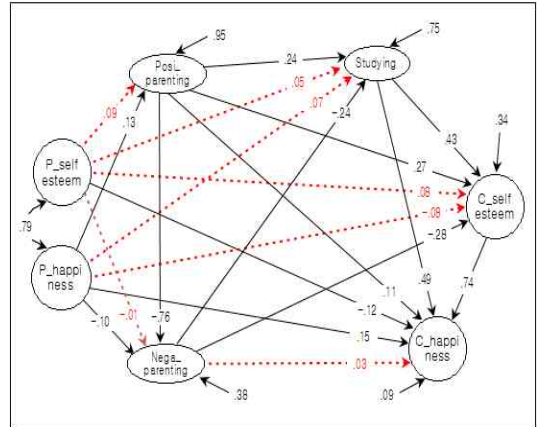
[Table 4] Test of measurement model

[표 4] 측정 모델 검사

| Path | | E4_model | M1_model |
|----------------|-----------|------------|------------|
| P_self esteem | posi_est | 1.00 | 1.00 |
| | nega_est | .97(.03)* | .90(.04)* |
| P_happiness | life_sat | 1.00 | 1.00 |
| | happy | .87(.03)* | .78(.03)* |
| Posi_parenting | warm | 1.00 | 1.00 |
| | auto_supp | 1.02(.02)* | 1.04(.02)* |
| | stu_supp | .73(.02)* | .70(.02)* |
| Nega_parenting | refuse | 1.00 | 1.00 |
| | press | .88(.04)* | .92(.04)* |
| | in_consis | 1.06(.04)* | 1.00(.04)* |
| Studying | aca_gra | 1.00 | 1.00 |
| | ach_sat | 1.41(.06)* | 1.27(.07)* |
| | sch_sat | 1.58(.11)* | 1.80(.14)* |
| C_self esteem | posi_est | 1.00 | 1.00 |
| | nega_est | .81(.03)* | 1.76(.02)* |
| C_happiness | life_sat | 1.00 | 1.00 |
| | happy | 1.02(.03)* | 1.03(.0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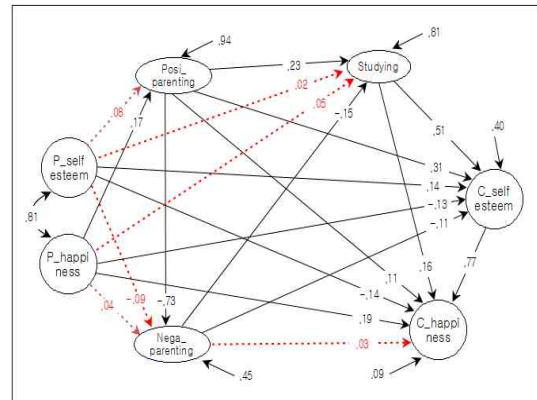
estimates(standard error), * $p < .001$

[Fig. 2]와 [Fig. 3]은 부모-자녀 간 자존감과 행복감 인과관계를 분석한 결과를 그림으로 제시한 것이다. 실선의 경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을 나타내며, 점선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나타낸다. 또한 [Table 5]와, [Table 6]은 두 모형의 직접효과 및 간접효과 추정치를 제시한 것이다.



[Fig. 2] Standardized solution of SEM(E4_model)

[그림 2]. SEM의 표준화된 솔루션



[Fig. 3] solution of SEM(M1_model)

[그림 3]. SEM 솔루션

먼저 부모자존감→양육태도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면, 부모자존감이 긍정양육태도(초4 $\beta = .09$ $t=1.69$ / 중1 $\beta = .08$ $t=1.24$)와 부정양육태도(초4 $\beta = -.01$ $t = -.10$ / 중1 $\beta = -.09$ $t = -1.47$)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초등학생과 중학생 모형에서 공통적인 결과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부모자존감이 학업활동에 미치는 영향(초4 $\beta = .05$ $t = .75$ / 중1 $\beta = .02$ $t = .30$)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반면, 부모자존감→자녀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만 부정 효과(초4 $\beta = -.12$ $t = -2.94$ / 중1 $\beta = -.11$ $t = -3.09$)를 나타내고 있다. 이 또한 초등학생과 중학생 모형에서 공통적인 결과이다. 그러나 부모자존감이 자녀자존감에

미치는 영향(초4 $\beta=.08$ $t=1.77$ / 중1 $\beta=.15$ $t=2.50$)은 초등학생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으며, 중학생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로 초등학생 모형과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부모자존감은 양육태도와 학업활동에는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자녀행복감에는 오히려 부적 영향을 미친다. 다만 부모자존감은 초등학생 자녀자존감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중학생 자녀자존감에는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자존감은 부모와 자녀 공통적으로 자신에 대한 만족, 가치, 효능감과 같은 긍정적인 인식과 더불어 자신에 대해 쓸모 있고, 자랑스럽고, 성공감이나 존중감을 갖는 것으로 측정되고 있다. 자존감 측정문항이 시사하는 바는 부모가 자존감이 높다면, 자녀는 자신감 있고 당당하며 본받아야 할 특성을 가진 존재로 인식될 수도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부담스러운 권위적 특성으로 인식될 수도 있다. 이러한 부모의 자존감 특성이 초등학생에게는 권위적 특성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자존감 형성에 있어서는 의미 있게 수용되지 않는 반면, 사춘기인 중학생에게는 부모에 대한 반항적 형태로 수용됨으로써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자존감이 높은 부모는 활동적이고 주장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18], 스스로 효능감이 높고 유능하다고 인식하는 부모는 자녀를 자신의 방식대로 계획하고 지도할 가능성이 추정된다. 더 나아가 한국사회에서 유능한 부모는 자녀의 학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능력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자존감이 높은 부모는 자녀의 학업활동을 독려한다는 명분으로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부모자존감은 자녀행복감에 부적 효과를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다. 그러나 부모자존감이 양육태도와 자녀의 학업활동을 매개하면 자녀행복감에 정적효과를 나타내는 결과는[Table 6] 구조방정식모형 내 요인의 인과관계 맥락에서 구체적으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더불어 부모자존감→자녀자존감 효과는 초등학생과 중학생 모형에서 공통적이며 이는 부모자존감의

영향은 아동기와 청소년기에 유사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부모행복감이 양육태도와 학업활동 그리고 자녀의 자존감과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부모행복감이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은 초등학생과 중학생 모형에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즉 초등학생 모형에서는 부모행복감→긍정양육태도($\beta=.13$ $t=2.40$), 부정양육태도($\beta=-.10$ $t=-1.96$)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반면, 중학생모형에서는 긍정양육태도($\beta=.17$ $t=2.68$)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나 부정양육태도($\beta=.04$ $t=.72$)에는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초등학생 부모행복감은 따스함, 자율성지지, 구조제공으로 구성된 부모의 긍정양육태도에는 정적효과를 나타내며, 거부, 강요, 비밀관성으로 구성된 부정양육태도는 부적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부모행복감은 양육태도에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판단된다. 반면, 중학생 집단에서는 부모행복감→긍정양육태도($\beta=.17$ $t=2.68$)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만 부모행복감→부정양육태도($\beta=.04$ $t=.72$)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해석의 여지를 주고 있다. 다만 추정 가능한 설명은 중학생인 경우 사춘기의 특성 때문에 부모와 관계가 초등학생 때와 다를 것이라 예상되며 부모-자녀 간 긍정적 상호작용보다는 부정적 특성이 상대적으로 더 드러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부모행복감의 효과가 상쇄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초등학생과 중학생 집단에서 공통적으로 부모행복감이 긍정적 양육태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부모자존감 효과와는 다른 결과이며, 아동·청소년기 발달 특성에 따라 부모 태도나 특성이 다르게 나타나거나 인식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부모행복감→학업활동 효과는 초등학생($\beta=.07$ $t=1.04$) 및 중학생($\beta=.05$ $t=.63$) 모형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부모자존감과 유사하게 부모행복감이 자녀의 학업활동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이는 학업성취가 가정배경의 영향에 의존한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비교하여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즉, 학업성적으로 대체되는 학업성취는 부모의 자존감이나 행복감과 같은 심리적 특성에 기인하기 보다는 양육태도와 같은 사회적 배경이나, 본 연구모형에 포함되지 않은 경제적 배경에 의해 결정될 가능성을 실증적으로 확인 또는 추정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부모 행복감이 자녀 자존감과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부모행복감→자녀자존감 경로는 초등학생 모형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으나($\beta=-.08$ $t=-1.79$), 중학생 모형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효과($\beta=-.13$ $t=-2.25$)를 나타내고 있다. 반면, 부모행복감→자녀행복감 효과는 초등학생과 중학생 모형에서 공통적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효과(초4 $\beta=.15$ $t=3.71$ /중1 $\beta=.19$ $t=4.18$)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부모행복감이 높으면 자녀행복감 높아지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다만 부모자존감과 부모행복감을 종합해서 살펴보면, 초등학생 모형에서는 부모자존감과 부모행복감 모두 자녀자존감에 통계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부모자존감→자녀행복감에는 부적효과, 부모자존감→부모행복감은 정적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그런데 중학생 모형에서는 부모자존감과 부모행복감이 자녀자존감과 자녀행복감에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를 보여준다. 특이한 점은 부모자존감→자녀자존감, 부모행복감→자녀행복감 경로는 정적 효과를 나타내는 반면, 부모자존감→자녀행복감, 부모행복감→자녀자존감은 부적 효과가 추정되고 있는 것이다. 사춘기인 중학생 시기에 부모의 자존감이 높으면 자녀의 행복감은 낮고, 부모행복감이 높으면 자녀자존감은 낮은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자존감과 행복감의 정적 상관이 비교적 높은 요인임을 가정할 때, 부모-자녀 간 자존감과 행복감 교차 관계가 부적인 효과인 것은 전술한 부모자존감 효과에 대한 논의를 포함하여 추가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부모행복감은 역시 자녀행복감과 동일한 문항이며 주로 현재와 미래 생활에 대한 낙관 및 만족감 특성을 나타내며, 스스로 또는 타인과 비교한 행복수준 정도로 측정하고

있다. 부모의 생활만족과 행복수준이 높으면 자녀에 대해 상대적으로 관대하거나 배려하는 수준이 높아지기 때문에 자녀의 행복감이 높아지게 될 가능성이 추정된다. 한국사회에서 자아개념 형성의 결정적 시기인 초·중학생들에게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은 학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그런데 행복수준이 높은 부모는 상대적으로 자녀의 학업활동에 대한 압박이 느슨할 가능성이 있다. 높은 수준의 부모행복감이 자녀에 대한 관대함이나 배려로 나타난다면 자녀의 행복감은 높아지는 맥락을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자기주도적 학습에 한계가 있는 한국사회 아동·청소년기 자녀들의 학업활동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따라서 자녀자존감에는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논리적 설명이 가능한 것이다.

앞에서 부모자존감 효과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중학생은 사춘기이며, 따라서 부모와 관계가 예민하게 작용하는 시기이다. 중요한 사회적 관계가 가정에서 학교로 이행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교사나 친구와의 관계가 의미 있게 대두되는 시기이기도 한 것이다. 역설적으로 부모의 특성이 예민하게 수용될 가능성이 있으며, 부모자존감이 권위적이라 인식된다면 청소년기 자녀행복감에는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부모행복감이 부모에 대한 자부심을 저해하는 것으로 인식된다면 자녀의 자존감은 낮아지는 맥락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추정은 본 연구모형과 측정 문항을 중심으로 해석한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맥락은 사춘기를 대상으로 성별 차이를 포함하여 구체적이고 추가적인 분석이 요구된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 모형에서는 부모의 자존감과 행복감이 자녀의 학업활동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또한 이 결과는 초등학생과 중학생 모형에서 공통적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아동·청소년 자녀의 학업활동→자녀자존감과 행복감에 미치는 효과는 한국사회 아동·청소년기 발달특성과 학업활동 간의 관계를 비교적 설득력이 있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학업활동→자녀자존감(초4 β

=.43 $t=10.71$ / 중1 $\beta=.51$ $t=10.72$)과 학업활동→ 자녀행복감(초4 $\beta=.19$ $t=4.84$ / 중1 $\beta=.16$ $t=4.05$) 경로는 초등학생 뿐 만 아니라 중학생 모형에서도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효과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한국사회에서 아동·청소년의 자존감과 행복감은 학업활동과 직·간접적으로 상당부분 관련이 있음을 실증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즉, 자녀자존감과 행복감은 부모자존감과 행복감 그리고 양육태도와는 별개로 자신의 학업활동 수준의 결과인 것이다.

부모양육태도가 자녀 학업활동, 자녀자존감 그리고 자녀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은 선행연구들이 제시한 검증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즉, 긍정양육태도→학업활동(초4 $\beta=.24$ $t=3.85$ / 중1 $\beta=.28$ $t=4.84$)과 긍정양육태도→자녀자존감(초4 $\beta=.27$ $t=5.79$ / 중1 $\beta=.31$ $t=7.55$) 그리고 긍정양육태도→자녀행복감(초4 $\beta=.11$ $t=2.86$ / 중1 $\beta=.11$ $t=3.46$) 경로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이 결과는 부모의 자녀에 대한 긍정적 태도 즉, 따스함, 자율성지지, 구조제공은 아동·청소년기 건강한 심리적 발달 및 학업활동에 결정적인 요인임을 확인해 주고 있다. 반면 부정양육태도 즉, 거부, 강요, 비일관적 태도는 학업활동(초4 $\beta=-.24$ $t=-3.53$ / 중1 $\beta=-.15$ $t=-2.58$)과 자녀자존감(초4 $\beta=-.28$ $t=-5.43$ / 중1 $\beta=-.11$ $t=-2.49$)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정영향을 보여주고 있다. 아동·청소년기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는 긍정적 양육태도와 반대로 자녀의 학업을 포함한 심리적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다만 부정양육태도→자녀행복감(초4 $\beta=.03$ $t=.76$ / 중1 $\beta=.03$ $t=.90$)은 초등학생과 중학생 모형에서 공통적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나타내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긍정양육태도→자녀행복감에 정적인 영향을 나타낸 것과 다르게, 부정양육태도→자녀행복감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으나 정적 추정치를 나타내고 있는 것은 추후 구체적인 분석을 통해 그 맥락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자녀자존감이 자녀행복감에 미치

는 효과(초4 $\beta=.74$ $t=13.35$ / 중1 $\beta=.77$ $t=16.26$)는 초등학생과 중학생 모형에서 공통적인 결과를 나타내며, 상대적으로 큰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자존감이 높으면 행복감 또한 크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자존감과 행복감의 인과관계가 매우 밀접한 인과관계를 갖는 것은 단순히 자녀자존감→자녀행복감 경로뿐 아니라 자녀자존감→자녀행복감의 경로도 가능할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자녀자존감→자녀행복감 경로를 .5로 고정하고 자녀행복감→자녀자존감 경로를 추가하여 상호작용 효과를 추정해보았다. 그 결과 자녀자존감→자녀행복감(초4 $\beta=.50$ $t=5.47$ / 중1 $\beta=.60$ $t=10.19$)경로와 자녀행복감→자녀자존감(초4 $\beta=.54$ $t=7.10$ / 중1 $\beta=.49$ $t=7.25$)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자존감과 행복감은 직접적이며 상당수준의 정적 상호인과관계가 확인된 것이다. 자존감은 무엇보다도 정신건강의 척도이며 자존감이 건강해지면 행복감을 느끼고, 자존감이 행복의 결과물이기도 하고 자존감의 결과가 행복감이기도 하다는 주장[19]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외생요인으로 투입된 부모자존감과 부모행복감 상관계수가 초등학생 및 중학생 모형 모두 높게 추정된 것은 자녀 뿐 아니라 부모의 자존감과 행복감 또한 매우 높은 상호작용 효과를 나타내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다만, 본 연구에서 검증하고자 한 부모자존감과 부모행복감이 자녀자존감과 자녀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은 일방적 효과이며, 상호교차 효과 즉, 부모자존감→자녀행복감, 부모행복감→자녀자존감 인과관계가 부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결과는 논의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구체적인 추가 분석이 요구된다.

부모자존감과 행복감이 자녀자존감과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설정한 구조방정식모형을 해석하는데 있어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추정치는 방해오차(ζ)이다. 방해오차는 수리적으로 $1-R^2$ 이며, 독립요인이 종속요인을 설명하지 못하는 수준을 나타낸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긍정양육태도의 방해오차는 초등학생 모형이 .95, 중학생 모형이 .94이다. 이는 부모자존감과 부모행복감이 긍정양육태도를 설명하는

[Table 5] SEM result of direct effect

[표 5] 직접적인 효과의 SEM 결과

| path | | E4 model(n=2,395) | | | | M1 model(n=2,382) | | | |
|---------------------|----------------|-------------------|---------|-----|-----------|-------------------|---------|-----|-----------|
| | | B | β | SE | t | B | β | SE | t |
| P_self esteem → | Posi_parenting | .11 | .09 | .07 | 1.69 | .11 | .08 | .09 | 1.24 |
| | Nega_parenting | -.01 | -.01 | .05 | -.10 | -.11 | -.09 | .07 | -1.47 |
| | Studying | .05 | .05 | .06 | .75 | .02 | .02 | .08 | .30 |
| | C_self esteem | .10 | .08 | .06 | 1.77 | .22 | .15 | .07 | 2.50** |
| | C_happiness | -.15 | -.12 | .05 | -2.94** | -.16 | -.11 | .06 | -3.09** |
| P_happiness → | Posi_parenting | .15 | .13 | .06 | 2.40* | .21 | .17 | .08 | 2.68** |
| | Nega_parenting | -.10 | -.10 | .05 | -1.96* | .05 | .04 | .07 | .72 |
| | Studying | .06 | .07 | .06 | 1.04 | .04 | .05 | .07 | .63 |
| | C_self esteem | -.09 | -.08 | .05 | -1.79 | -.16 | -.13 | .07 | -2.25* |
| | C_happiness | .17 | .15 | .05 | 3.71*** | .23 | .19 | .06 | 4.18*** |
| Posi_parenting → | Nega_parenting | -.68 | -.76 | .03 | -26.84*** | -.67 | -.73 | .03 | -25.08*** |
| | Studying | .20 | .24 | .05 | 3.85*** | .20 | .28 | .04 | 4.84*** |
| | C_self esteem | .27 | .27 | .05 | 5.79*** | .32 | .31 | .04 | 7.55*** |
| | C_happiness | .12 | .11 | .04 | 2.86** | .12 | .11 | .03 | 3.46*** |
| Nega_parenting → | Studying | -.22 | -.24 | .06 | -3.53*** | -.12 | -.15 | .05 | -2.58** |
| | C_self esteem | -.31 | -.28 | .06 | -5.43*** | -.12 | -.11 | .05 | -2.49* |
| | C_happiness | .04 | .03 | .05 | .76 | .03 | .03 | .04 | .90 |
| Studying → | C_self esteem | .54 | .43 | .05 | 10.71*** | .74 | .51 | .07 | 10.72** |
| | C_happiness | .24 | .19 | .05 | 4.84*** | .22 | .16 | .05 | 4.05*** |
| C_self esteem → | C_happiness | .75 | .74 | .06 | 13.35*** | .75 | .77 | .04 | 16.26*** |

*p<.05, **p<.01, ***p<.001

[Table 6] SEM result of indirect effect

[표 6] 간접효과 SEM 결과

| path | | E4 model(n=2,395) | | | | M1 model(n=2,382) | | | |
|---------------------|----------------|-------------------|---------|-----|----------|-------------------|---------|-----|----------|
| | | B | β | SE | t | B | β | SE | t |
| P_self esteem → | Nega_parenting | -.08 | -.07 | .04 | -1.68 | -.07 | -.06 | .06 | -1.24 |
| | Studying | .04 | .04 | .02 | 1.61 | .04 | .04 | .03 | 1.68 |
| | C_self esteem | .10 | .08 | .06 | 1.81 | .10 | .07 | .08 | 1.38 |
| | C_happiness | .18 | .15 | .06 | 2.81** | .25 | .18 | .08 | 2.95** |
| P_happiness → | Nega_parenting | -.10 | -.10 | .04 | -2.40* | -.14 | -.12 | .05 | -2.66** |
| | Studying | .07 | .08 | .02 | 3.05** | .05 | .06 | .02 | 2.28* |
| | C_self esteem | .17 | .15 | .05 | 3.29*** | .15 | .12 | .07 | 2.16* |
| | C_happiness | .10 | .09 | .06 | 1.70 | .03 | .03 | .07 | .47 |
| Posi_parenting → | Studying | .15 | .19 | .04 | 3.53** | .08 | .11 | .03 | 2.58** |
| | C_self esteem | .40 | .39 | .04 | 9.53*** | .29 | .28 | .04 | 7.67*** |
| | C_happiness | .56 | .55 | .04 | 13.81*** | .50 | .50 | .03 | 14.49*** |
| Nega_parenting → | C_self esteem | -.12 | -.10 | .03 | -3.54*** | -.09 | -.08 | .03 | -2.55** |
| | C_happiness | -.38 | -.33 | .06 | -6.71*** | -.18 | -.17 | .04 | -4.42*** |
| Studying → | C_happiness | .40 | .32 | .05 | 8.80*** | .56 | .40 | .06 | 9.60*** |

*p<.05, **p<.01, ***p<.001

정도가 약 5~6%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더 나아가 부정양육태도의 방해오차는 초등학생 모형이 .38, 중학생 모형이 .45로 부모자존감과 행복감 그리고 긍정양육태도가 부정양육태도를 설명하는 정도가 초, 중학생 모형 각각 62%, 55%로 상당한 설명력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자녀의 학업활동 방해오차는 초, 중학생 모형 각각 .75, .81이며 이는 부모의 자존감과 행복감, 양육태도가 자녀의 학업활동을 각각 25%, 12%정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반면, 자녀자존감 방해오차는 초, 중학생모형 각각 .34, 40, 자녀행복감은 .09이다. 이는 부모 자존감과 행복감, 양육태도 그리고 자녀의 학업활동이 자녀자존감을 64%, 60% 설명하고 있으며, 자녀행복감은 초, 중학생 모두 91%를 설명하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다. 이 결과는 부모자존감과 행복감 그리고 양육태도는 자녀의 학업활동, 자존감 그리고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또는 설명력이 크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부모의 자존감과 행복감은 자녀의 학업활동보다는 자존감과 행복감에 더 큰 설명력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본 연구에서 설정한 구조방정식모형이 비교적 설명력이 높은 모형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5.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부모-자녀 간 자존감과 행복감의 인과관계를 확인하는 것이다. 특히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중요한 양육태도와 아동·청소년기 중요한 발달과업인 학업활동과의 관계에서 부모자존감과 행복감이 자녀 자존감과 행복감에 어떤 인과관계를 나타나는지 검증하였다. 결론과 제언은 다음과 같다.

부모자존감은 자녀양육방식과 학업활동에는 영향을 미치는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자존감은 생활환경이나 발달주기에 따라 달라지는 역동성을 가지고 있으나, 기본적인 특성은 초기 발달단계에서 형성되는 것이다. 따라서 부모의 자존감은 부모의 초기 발달단계에서 형성되어 비교적 지속적인 특성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자녀 양육방식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부모자존감이 양육태도와 학업활동에 미치는 효과가 초등학생 집단과 중학생 집단에서 공통적으로 의미 있게 드러나지 않은 것은 이러한 추정을 가능하게 한다.

부모행복감은 긍정양육태도에는 유의한 영향을 나타내지만, 부정양육태도에는 초등학생과 중학생 집단에서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초등학생 집단은 부적영향을 중학생 집단에서는 의미있는 효과를 나타내지 못한다. 무엇보다도 부모행복감이 자녀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효과를 나타내는 반면, 부모행복감이 자녀자존감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거나(초등학생 모형) 부적 효과(중학생 모형)를 나타내고 있다. 이 결과는 부모자존감이 자녀자존감과 자녀행복감에 미치는 효과와는 상반되는 결과이며, 따라서 그 논의 또한 부모자존감 효과를 역으로 해석될 여지를 보여준다. 본 연구결과는 부모자존감→자녀자존감, 부모행복감→자녀행복감은 초등학생과 중학생 모형 모두 통계적 유의성에 차이가 있지만 정적 인과관계인 반면, 부모자존감→자녀행복감, 부모행복감→자녀자존감은 부적 인과관계로 결론 내릴 수 있다.

또한 부모자존감과 부모행복감이 자녀 학업활동에 미치는 효과는 초등학생 뿐만 아니라 중학생 모형에서도 그 효과를 확인할 수 없다. 이것은 아동·청소년기 학업성취가 가정배경의 영향을 크다는 선행연구들과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부모양육태도가 학업활동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중요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긍정양육태도는 학업활동에 정적효과, 부정양육태도는 부적효과가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부모자존감과 부모행복감이 자녀 학업활동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나타내지 않는 반면, 부모양육태도는 자녀 학업활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아동·청소년기는 가정에서 생활영역이 확대되는 시기이지만 여전히 가정배경의 영향을 배제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본 연구 결과를 구체적으로 탐색해 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자존감과 행복감, 그리고 부모와 자녀 세대 간 자존감과 행복감 효과는 일방적 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 부모의 자존감과 행복감, 자녀의 자존감과 행복감의 상관관계 또는 상호작용 효과는 정적이며 상대적으로 높은 영향을 나타내지만 긍정적 효과는 부모자존감→자녀자존감, 부모행복감→자녀행복감에서만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는 아동기인 초등학교 4학년과 청소년기 중1학생 집단의 부모-자녀 자존감과 행복감을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녀의 학업활동을 매개요인으로 투입하여 아동기·청소년기 자존감과 행복감 간의 인과관계 맥락을 확인하였다. 그런데 초등학생과 중학생 모형 데이터는 동일 대상으로 수집된 패널 데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로 이행하는 시계열적 맥락으로 해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자존감과 행복감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패널데이터가 축적된다면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로 이행하는 특성을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아동·청소년기는 특히 성별 간에 발달 속도에 상당한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남학생과 여학생을 하나의 집단으로 분석할 시, 성별 간에 나타날 구체적인 차이를 간과할 수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성별 집단을 구분하여 인과관계를 확인한다면 아동·청소년기 건강한 발달에 도움이 되는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Reference

- [1] Korea University Institute of Educational Research. 'Dictionary of education', Book Publishing Wonmisa. 2007.
- [2] J. D. Brown and M. A. Marshall. 'The Three faces of self-esteem', In M. H. Kernis(Ed.), Self-Esteem issues and answers'. New York and Hove: Psychology Press. 2006.
- [3] N. Branden. 'The Psychology of Self-esteem'. NY: Bantan Books. 1989.
- [4] S. Epstein. 'The implications of cognitive-experiential self-theory for research in social psychology and personality'. *Journal for Theory of Social Behavior*, vol.15, pp.283-309. 1985.
- [5] C. J. Mruk. *Defining Self-esteem: An Often Overlooked Issue with Crucial Implications*, In M. H. Kernis(Ed.), Self-Esteem issues and answers, New York and Hove: Psychology Press. 2006.
- [6] B. O. Kim. *Self-esteem Class*. Seoul: Hakjisa. 2013.
- [7] J. Bowlby. *A Secure Base: Parent-child Attachment and Healthy Human Development*. NY: Basic Books. 1988.
- [8] R. W. Robins and K. H. Trzesniewski. 'Self-esteem development across and the lifespan'.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s*, vol.14, pp.158-162, 2005.
- [9] D. Neuharth. *If You had Controlling Parents: How to Make Peace with Your Place in the World*. DIANE Publishing Company. 2002.
- [10] H. K. Kang. The Impact of a parental support and a self-actualization need on an academic satisfaction and a psychological Euphoria. *Research Center for Korea Youth Culture*, vol.43, pp.7-30, 2015.
- [11] H. J. Kim and T. S. Lee. 'The effect of father's parenting behavior and happiness on children's school life adjustment'.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19, no.22, pp.723-742, 2019.
- [12] H. S. Park. 'The longitudinal study on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attitude and adolescent's self-esteem_Application of Latent Growth Model'.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computer and information*, vol. 24, no.5, pp.157-161, 2019.
- [13] N. M. Yang, H. J. Park and D. G. Lee,

- 'The relationship between warm parenting style and children's interpersonal conflict-resolution ability in middle school students: The mediation effects of emotional support and self-esteem'. *Korea Journal of Counseling*, vol.15, no.4, pp.1515-1529, 2014.
- [14] H. M. Yun. 'The influence of child's abuse and neglect experience on child's perception of parent-child relationship and self-esteem'.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hild welfare*. vol.5, pp.95-120, 1997.
- [15] S. A. Lim. 'Group comparison analysis of wrongdoing and normal adolescents: Effects of positive parenting attitude on self-esteem and school adjustment'.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21, no.9, pp.79-100, 2014.
- [16] S. R. Kwak. 'Analysis of causal relationship between self-esteem and happiness as non-cognitive academic achievement'. *Korean Child Youth Panel Survey Conference*, pp.302-322, 2016.
- [17] T. Humphreys. '*Self-Esteem: The Key to Yours Child's Future*'. Gill & MacMillan. 2004.
- [18] S. Coopersmith. '*The Antecedents of Self-esteem*'. San Francisco and London: W.H. Freeman and Company, 1967.
- [19] H. G. Yoon. '*Self-esteem Class*'. Seoul: Simple Life, 2018.
- [20] L. Keyes and M. Corey. 'The subject well-being of America's youth: toward a comprehensive assessment'. *Adolescent & Family Health*, vol.4, no.1, pp.3-11, 2006.
- [21] A. Furnham and H. Cheng. 'Perceived parental behaviour, self-esteem and happiness'. *Social Psychiatry and Psychiatric Epidemiology*, vol.35, no.10, pp.463-470, 2000.
- [22] R. S. Zora and S. Marija. 'Relations of parenting styles and friendship quality to self-esteem, life satisfaction and happiness in adolescent'. *Applied Research in Quality of Life*, vol.9, no.3, pp.749-765, 2013.
- [23] M. N. Kwon and J. S. Lee. 'The relationships among parenting behavior, basic psychological needs and happiness perceived by school children'. *Journal of Korean Council for Children & Rights*, vol.19, no.4, pp.589-610, 2015
- [24] J. K. Lee and H. C. Cho. 'A longitudinal study of factors associated with happiness in primary school childre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hild welfare*, vol.40, pp.41-71, 2012.
- [25] R. Veenhoven. '*Questions on Happiness: Classical Topics, Modern Answers, Blind Spots*'. In Strack, F., Argyle, M., & Chwartz N.(Eds.) *Subjective Well-Being*'. Oxford: Pergamon Press, 1991.
- [26] H. G. Lee. '*The Psychology of Happiness -subjective Well-being*'. Seoul: Bobmunsa, 1997.
- [27] J. Averil and T. More. '*Happiness*'. In L. M.Lewis, & J. M. Haviland.(eds.) *Handbook of Emotions*'. NY: The Guilford Press, 1993.
- [28] S. Kwak, 'The effects of future goal consciousness in adolescence on personal competence and happiness in early adulthood. *Journal of Korean Education*, vol.45, no.4, pp.5-34, 2018.
- [29] S. M. Bishop and G. M. Ingersoll. 'Effects of marital conflict and family structure on the self-concepts of pre-and early adolescent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vol.8, no.1, pp. 25-38, 1988.
- [30] R. J. Waston and H. C. Lindgren. '*Psychology of the Child and Adolescent*(4th ed)'. NY: Macmillan Publishing Co. Inc, 1979.
- [31] S. Harter. '*Developmental Processes in*

- the Construction of the Self*. In T. D. Yawkey & J. E. Johnson (Eds), Integrative processes and socialization: Early to middle childhood', Lawrence Erlbaum Associates, Inc, 1988.
- [32] S. R. Kwak 'The Effects of self-esteem and academic performance as educational achievement to depression and happiness'. *Korean Welfare Panel Conference*, pp.53-69, 2016.
- [32] Y. S. Park and U. C. Kim. 'The influence of parent-child relationship on achievement motivation, and academic achievement among Korean adolescents: Indigenous psychological analysi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10, no.1, pp.139-165, 2003.
- [33] Y. S. Park and U. C. Kim. (2009). Factors influencing happiness among Korean adolescents: with specific focus on the influence of psychological, relational and financial resources and academic achievement.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Culture and Social problem*, vol.15, no.3, pp. 399-429, 2009.
- [34] S. J. Myeong and S. H. Kang. 'The effects of social support, academic achievement, and optimism on middle school students' happiness'. *Education Evaluation Research*, vol.24, no.3, pp.619-643, 2011.
- [35] S. R. Kwak. 'Analysis of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adolescents' academic performance and happiness'. *Korean Child Youth Panel Survey Conference*, pp.91-111, 2015.
- [36] E. J. Park, Y. R. Lee and S. H. Lee. 'The variation of self-regulated learning and academic achievement of High School students contrasted by life goal Type'. *The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vol.14, no.3, pp.1-27, 2016.
- [37] A. R. Choi and Y. S. Lee. 'The mediating effects of ego-resiliency and life stress of children in response to the relation between the happiness of mother and the happiness of elementary school child'. *Korea Journal of Counseling*, vol.16, no.1, pp.331-351, 2015.
- [38] H. C. Choi and M. H. Hwang. 'Testing the autoregressive cross-lagged effects between adolescents' academic achievement and life satisfaction'. *Korea Journal of Counseling*, vol.11, no.3, pp.1255-1270, 2010.
- [39] Y. H. Ka, M. J. Cho and S. W. Lim. (2008).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s rearing attitudes, self-esteem and subjective well-being. *Youth Facility Environment*, vol.6, no.4, pp.31-42, 2008.
- [40] M. K. Kim. 'Adolescents' perceived relationship between parent attachment and life satisfaction: Examination of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Journal of Parent Education*, vol.8, no.2, pp.37-52, 2016.
- [41] M. S. Ko. 'Influence of parents' child rearing attitudes on family cohesion and self-esteem in adolescents'. *Child Health Nursing Research*, vol.16, no.3, pp.195-202, 2010.
- [42] K. J. Rhee and S. R. Kwak. 'The effects of parents' parenting style on self-esteem and academic achievement of children and adolescents'. *Korean Child Youth Panel Survey Conference* pp.707-734, 2012.
- [43] E. J. Oh.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parenting style and life satisfaction of male and female High School students -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Youth Facility Environment*, vol.15, no.4, pp.139-152, 2017.
- [44] M. K. Jeong and E. J. Oh.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fficac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dolescents' perceived parental rearing style and life satisfaction'. *Youth Facility Environment*, vol.14, no.2,pp. 83-93,2016.

- [45] K. J. Rhee. '*Structural Equation Model -Causality, Statistical Analysis and Inference*'. Seoul: Kookmin University Press, 2012.